

6·13 지방선거 누가 뭐나 - (6) 목포시장

민주-민평, 치열한 승부 '예고'

박홍률 '현역 프리미엄' 업고 재선 도전 김종식·최기동·조요한·김대준 등 격돌 목포고·문태고간 자존심 싸움...과열 우려

목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간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수성에 나선 현역 민평당 시장에 맞서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에선 지역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민평당에선 재선을 노리는 박홍률 현시장의 출전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첫 주소속 당선 기업을 토한 박 시장은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이후 국민의당 분화과정에서 민평당에 자리 잡았다.

그는 '관광도시·수산도시·강소도시 목포'의 초석을 다진 시장성과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 선거 이후 곧바로 재선체제에 들어갔다는 말이 떠돌 만큼 지역관리에 매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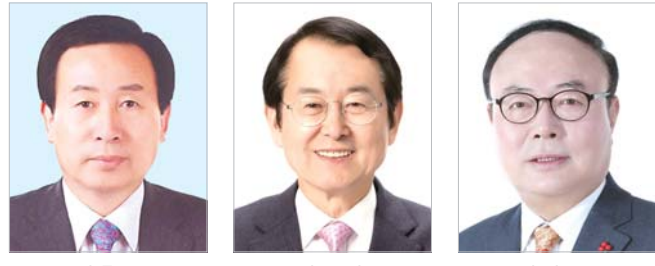
분양를 저조에 허덕이던 대양산단 활성화와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부재해결에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입장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든든한 우군이다.

민주당에선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최기동 목포시 의원, 조요한 목포시의원, 김대준 목포발전연구원 고문 등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2일 목포종합수산시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종식 전 부시장은 목포 부시장과 3선 완도군수를 지냈다. 국내외 교수진들로 구성된 '목포권 정책연구소'를 발족시키는 등 준비된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목포경제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보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며 "서남권 경제통합 실현, 역동적인 경제도시, 힐링 관광도시, 원도심 명소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목표달성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포 토박이인 최기동 시의원은 매일 새벽 민생투어를 펼치는 등 '생활정치'의 달인'으로 통한다. 4선 시의원으로 제6대 전·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3선인 조요한 시의원은 유시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남도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홍률 김종식 최기동



조요한 김대준 박명기 김성남

김대준 고문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활동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방재정감시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목포경제를 살릴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 박 위원장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밖에 김성남 한반도미래연합 전남도 지구당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목포시장 선거는 탄탄한 지역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민평당에 맞서 민주당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등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발판 삼아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의 참패를 설욕하는 등 목표를 되찾는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이 민선 지방자치 이후 목포시장 자리를 내준 것은 지난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민평당 입장에선 지역명주인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현역 시장, 다수의 시·도 의원이 포진한 목포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과 학연으로 얽히고설킨 지역구도가 어떻게 발현될 지도 관심이다.

유력후보들의 고향이 진도와 완도로 나뉘었고, 목포의 쌍두마차로 꼽히는 목포고와 문태고간 자존심 싸움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일찌감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전례없는 과열선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근산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이용섭 "지방선거 후보들 개헌안 통과 힘 모으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시장 후보들과 각 정당 후보들 및 각 시·구의원 후보들 모두에게 문재인 정부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대폭 분산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써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자유·평등 이념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촛불혁명이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모든 후보들이 개헌 촉구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강기정, 전국 최초 광주빅데이터진흥원 설립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빅데이터진흥원을 설립하고 데이터기반 산업도시를 추진하는 등 500만 광주광역경제권을 선도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MUST 4대 분야 10대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광역경제권의

4차 산업혁명을 광주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광주빅데이터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에서도 구글·아마존·우버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No.1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0억원 혁신펀드를 조성해 창업·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호, 무상교육 지원 등 5대 복지공약 제시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중·고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 등 5가지 무상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공약'을 내놓았다. 5대 무상정책 공약으로 중·고 신입생 30만원 무상교육 지원, 입학수당 100만원 지원, 중등 생활비 지원, 아이돌봄 사업 자부담 해소, 임대근인 무상상해보험 지원 등을 제시했

다. 또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어르신 자존감 증진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강화, 출산·육아·보육 공공성 강화, 만성질환·치매 예방 등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레저·생활체육 기반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공무원 90% 수준 인상 등을 통해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우수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민형배,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보육정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정책 공공성과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3대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 공공성을 위해 2.7%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정원충족을 낫는 가정·민간어린이집

장기입차방식 통한 국공립 전환 ▲국공립 매입지원액 현실화 ▲지역 보육수요·여건 분석 통한 신설 등을 내놨다. 민 예비후보는 이어 맞춤형 보육과 육아지원을 위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오는 2022년까지 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다양한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기철 기자



신정훈, 혁신도시·에너지밸리 활성화 간담회 참석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11시 혁신도시지원단 주관으로 기업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도시 및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선 3·4기 나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유지한 빛가람혁신도시

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 3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나날이 발전한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투자기업들의 성공과 함께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행렬이 나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업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장만채 "청년 개미창업 지원...실리콘밸리 조성"

6·13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22일 광양에서 청년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 논의했다. 장 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광양제철 연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유관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청년 개미창업 지원으

로 전남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 제도 도입과 성실구매 시 재입금이 가능하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박혜자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 환영"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원내총무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분권 개헌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국정과제를 진

일보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과제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다만, 헌법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헌법에 지방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송갑석 "남북미 회담 동북아 갈등 해소 기여할 것"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원내총무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북미 정상회담 진척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표와 관련, "남북미 정상 회담을 위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이 구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력을 비전카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바꾸는 통 큰 구상이며 세계사에 남을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기초의원 쪼개기 안돼" 민주평화당 장병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3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광주·전남 '텃밭공략' 본격화

6·13지방선거 필승 '광주 4대 공약' 발표

민주평화당은 6·13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광주지역 공약 '광주약속 4'를 22일 발표했다.

4대 광주공약에는 5·18진상규명(민주), 고용률 향상과 사회적 약자 생활안정 지원(민생),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평화), 미투 2차 피해방지(혁신) 등을 담았다.

최경환 평화당 광주시장위원장은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둔 민주평화당이 광주와 호남에서 지방선거 승리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광주시당은 '광주약속 4'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23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내놓는다.

결의대회에는 최경환 시장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

표, 장병원 원내대표, 운영일 최고위원, 전정배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당원 등이 참석한다.

결의대회에 앞서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광주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단 간담회, 글로벌 광동산업체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갖는 등 민생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평화당은 지난 20일 광주시장 공천관리위원회에 최경환 시장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달 중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가 4월 중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다.

/조기철 기자